

장난감 가지고 노는 EU 돼지들 ... 특성 맞춰 서식환경 조성



슬픈 동물원

<6> 사육사들이 말하는 동물복지

길들이기 보다 동물 처지 이해가 첫걸음

중 보전활동 무게 두고 동물원 운영해야

최소한의 사육기준 담긴 '동물원법' 제정 시급



대만 녹색계생태농원 큰물새장 우리 모습. 이 우리엔 새들이 자신의 습성대로 먹이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행동풍부화 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유럽연합의 돼지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돼지코로 축구 공을 물고 다니거나 천장에 매달린 쇠사슬을 이리저리 끌어당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유럽연합이 지난 2003년 2월 회원국의 모든 농장 돼지들에게 의무적으로 장난감을 제공해야 한다는 동물 복지 규칙을 발표한 덕분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아 있는 돼지를 생매장하는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다. 국내 농장의 돼지들은 대부분 도살장에 끌려갈 때까지 움짱달췌하기도 힘든 만큼 좁은 우리에 갇혀 산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지능이 높고 활발한 성격의 돼지에게 지루함은 큰 고통이다.

국내·외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육사와 수의사들이 말하는 동물복지란 무엇일까.

우선 동물을 길들이려 하지 않고 녀석들의 처지를 제대로 아는 게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세발자전거를 타다가 공연이 끝나면 철창에 갇혀 지내는 원숭이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 신주현(新竹縣) 녹색계생태농원(Green World Ecological Farm) 신차오 이사장은 “농원 내에 사무실과 식당·휴게소가 많은데, 에어컨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번식기에 있는 새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류생태공원 등 5대 주제농원으로 나뉜 이 농원은 동물과 식물의 자연생태·종합휴식·교육과 오락을 위한 대규모 생태농장으로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이 조성돼 있다.

신차오 이사장의 발언은 동물복지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선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는 동물마다 복지의 기준은 각기 다르다고 했다.

젓소에선 사료 대신 실컷 질경이대며 씹을 수 있는 마른 풀이 필요하고 동물원 기린에게는 높은 곳에 달아놓은 먹이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좁은 철창 안에 각기 다른 종(種)을 갇아 놓고 사육하는 우리나라에선 꿈 같은 얘기가 다름 없다.

대만 신주현(新竹縣) 류푸촌(六福村·육복촌) 동물원 사육사 장첸양씨가 말하는 동물복지는 현대 동물원의 가장 기본 역할인 동물의 종 보전활동에 무게를 두고 동물원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집계획에 근거해 동물원이 동물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면 동물 복지와 안전은 물론 어린 관람객들의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 보전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일시적으로 인위적인

보호시설에서 증식·보전함으로써 언젠가 자연의 서식환경이 회복됐을 때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씨앗을 남겨두자는 개념이다.

20세기 후반 접어들면서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동물원들은 오락과 구경 위주의 전통적인 동물원에서 벗어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전하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그리고 생태와 환경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려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영국은 1984년부터 시행된 동물원 면허법으로 동물원의 허가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야생동물 전신을 목적으로 연중 7일 이상 대중에게 개방하는 영구적 시설을 동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EU는 1999년 동물원이 야생동물 보존·동물복지·대중 교육 및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지침을 제정했다. 총 11장으로 구성된 동 지침은 동물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침의 목적을 따를 수 있는 기술적 기준들을 작성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동물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상 각각 교양시설·공원시설·박물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동물원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수족관 5개소를 포함해 17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경우 동물원 내 동물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동물원과 관련한 명시적 정의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육사와 수의사들은 동물원에 최소한의 사육 기준을 제시하고 학대를 방지하며 개체수·폐사·질병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물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안은 지난해 테마동물원에서의 동물 학대 사건, 서울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사육사를 공격한 일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나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만 녹색계생태농원 리종리 사육사는 “동물조차 존중받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사람도 행복한 세상일 것”이라며 “마하트마 간디가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동물을 대할 때 한 번쯤 상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기고

동물원법 입법 시급하다



지난해 어느 사설 동물원의 조련사에 의한 바다코끼리 학대모습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동물쇼와 공연은 동물원의 주요 수입원이며 사람의 눈요기감이다.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서 보여주는 동물쇼는 동물 본성이나 생물종 특성을 거스른다.

게다가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연히 학대가 이루어진다. 조련사의 동물학대는 우리국민의 공분을 모았다. 이는 역설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제도는 국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동물원에서는 동물학대가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고 동물원이나 사육시설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주의 한 관광농원에서는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육사를 공격했고, 서울대공원에서는 호랑이가 탈출해 사육사를 물었다. 일련의 사건들은 동물원 관리가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원은 인간이 동물을 구경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동물원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외 보존기관’(야생서식지가 아닌 종의 보존공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종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동물원의 의무사항이다. 사육환경의 기준은 동물복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학대받는 동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동물원에서 재규어를 사육하고 있는 일산의 동물원을 아이와 함께 찾아갔던 한 학부모는 동물원 관리가 교육적이지 않았다고 우리 의원실에 문제제기를 전달했다.

1989년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스티븐 캘러트는 철창 우리 같은 무시무시한 수용시설에 갇힌 동물을 본 관람객들에게서 동물에 대한 무관심과 공포심이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미 영국·뉴질랜드·오스트리아·체코·덴마크·브라질 등 해외 여러 나라들은 동물원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써 마련하고 동물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 관리에 대한 기준과 더불어 동물복지 관점에 입각한 사육기준과 관람객의 안전사항을 규정하는 동물원법이 지난해 9월 27일 발의됐다.

동물원법은 환경부장관이 동물원의 설립과 허가에 관해 심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원 허가제가 실시된다.

사육기준에 맞지 않는 동물원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작 중요한 것은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그 종의 습성에 맞지 않는 훈련을 할 수 없게 하여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고래류처럼 자연상태의 종의 특성상 동물원 사육이 극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동물을 사육부적합 동물로 매년 지정하도록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동물원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8만4000여명의 국제단체 회원들이 이 법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다.

학대받는 동물을 보며 즐기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바를 수 없다. 동물원법의 입법은 우리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며 또한 생명존중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의미를 남길 것이다.

장하나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만 신주현(新竹縣) 녹색계생태농원(Green World Ecological Farm) 알파카(alpaca·소목 낙타과의 포유류) 우리. 이 동물원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알파카 우리를 개방, 관람객들이 동물 먹이주기 등 행사를 통해 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